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장재산의 대부분을 대형 우량주 중심의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

- 리스크관리팀에서 금융공학기법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구성 프로세스 확립, 위험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제공 및 운용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운용업무 및 포트폴리오 위험관리에 대한 지원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297억 원

펀드유형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주식 편입비 : 60% 이상

설정일

(운용펀드 : 2004년 12월 21일)

- 클래스 A : 2010년 08월 12일
- 클래스 A-E : 2014년 06월 11일
- 클래스 C-E : 2012년 02월 13일
- 클래스 C-P2(연금저축) : 2015년 08월 20일
- 클래스 C5 : 2010년 10월 25일
- 클래스 S : 2014년 04월 22일
- 클래스 S-P2 : 2017년 05월 23일

벤치마크 KOSPI 100%

신탁업자 SC제일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5시 30분 이전	2영업일	4영업일
15시 30분 경과후	3영업일	4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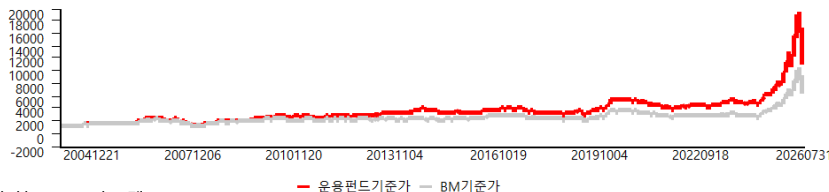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설정이후
운용펀드	-27.77%	-5.82%	20.85%	106.87%	143.64%	179.90%	143.60%	1,202.19%
클래스 A	-27.89%	-6.18%	19.96%	103.77%	136.09%	166.87%	124.47%	366.10%
클래스 A-E	-27.86%	-6.08%	20.21%	104.66%	138.29%	170.67%	130.00%	255.71%
클래스 C-E	-27.90%	-6.20%	19.90%	103.57%	135.63%	166.10%	123.36%	278.23%
클래스 C-P2(연금저축)	-27.88%	-6.12%	20.09%	104.23%	137.21%	168.79%	127.24%	205.19%
클래스 C5	-27.90%	-6.20%	19.91%	103.59%	135.65%	166.12%	123.38%	333.36%
클래스 S	-27.85%	-6.06%	20.25%	104.80%	138.58%	171.15%	130.66%	273.59%
클래스 S-P2	-27.84%	-6.03%	20.32%	105.11%	139.34%	172.67%	133.14%	295.83%
벤치마크	-22.19%	-0.05%	26.24%	103.22%	138.04%	150.53%	105.96%	645.83%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설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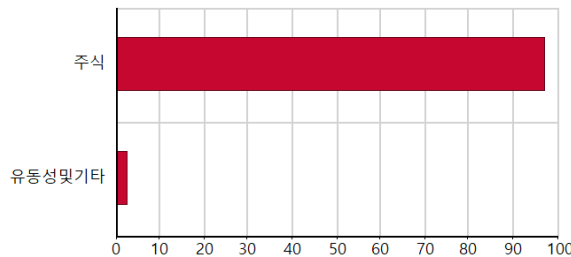


출처: AITAS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6년 07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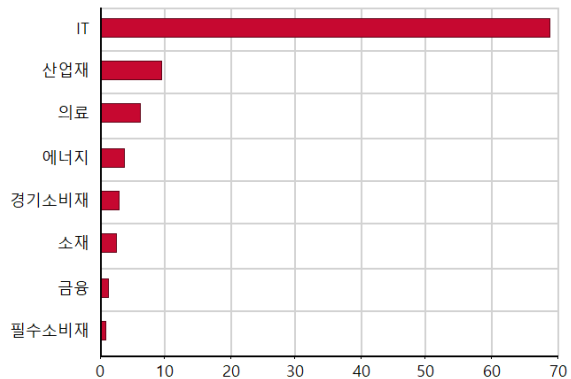
<전체>

순위	자산명	비중(%)
1	주식	97.0
2	유동성및기타	3.0



<주식 업종별>

순위	자산명	비중(%)
1	IT	69.0
2	산업재	9.4
3	의료	6.3
4	에너지	4.0
5	경기소비재	3.1
6	소재	2.7
7	금융	1.5
8	필수소비재	1.1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6년 07월말 기준 주식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삼성전자	전기.전자	33.4	현대차	운송장비.부품	1.8
SK하이닉스	전기.전자	24.5	HD현대중공업	운송장비.부품	1.5
SK스퀘어	금융	2.8	LG에너지솔루션	전기.전자	1.5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약	1.9	셀트리온	제약	1.5
삼성전기	전기.전자	1.9	삼성물산	유통	1.3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 : 총 연 1.675% (판매 0.9%)
- 클래스 A-E : 총 연 1.175% (판매 0.4%)
- 클래스 C-E : 총 연 1.775% (판매 1%)
- 클래스 C-P2(연금저축) : 총 연 1.425% (판매 0.65%)
- 클래스 C5 : 총 연 1.775% (판매 1%)
- 클래스 S : 총 연 1.125% (판매 0.35%)
- 클래스 S-P2 : 총 연 0.975% (판매 0.2%)

(공통사항)

운용 0.72%, 신탁 0.04%, 사무관리0.015%

선취수수료

- 클래스 A: 납입금액의 1.0% 이내
- 클래스 A-E: 납입금액의 0.5% 이내

후취수수료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7월 KOSPI는 전월 대비 22.19% 하락한 6,595.45, KOSDAQ은 21.11% 하락한 719.76pt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월초부터 AI 투자 사이클 둔화우려와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되며 하락 출발한 지수는 수급 불안이 심화되며 하락세가 가팔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6월 CPI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인플레이션 재확산 및 금리 인상 부담이 완화되며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지수는 반등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대규모 Capex 계획 발표에도 투자 확대보다 수익성과 현금흐름 부담으로 시장의 우려가 지속되며 지수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월 후반에는 중국 CXMT의 상장, SK하이닉스 실적 기대치 하회 및 주주환원 기대감 소멸로 국내 반도체 경쟁력과 이익 전망에 대한 우려가 재차 확대되었고, 미 연준의 패파적 신호와 중동 지정학적 불확실성까지 다시 더해지며 KOSPI는 5,500pt대까지 밀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7월 마지막 거래인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실적 서프라이즈를 통해 AI투자가 실제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여기에 대형 헤지펀드 청산에 따른 수급 부담 완화와 최태원 SK 회장의 자사주 매입까지 더해지며 KOSPI는 하루만에 17.91% 폭등,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7월 낙폭을 일부 회복하며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정유, 섬유의복, 은행 업종이 상승세를 보인 반면, 전자부품, 반도체, 인터넷 업종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월/달러 환율은 1,441.10원으로 전월 대비 6.51% 하락했고, WTI 기준 국제유가는 전월대비 21.83% 상승한 84.6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급 주체별로는 기관과 개인이 각각 3.6조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8.6조원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증권, 건설, 기계 등 주가 조정을 예상하고 언더웨이트로 전환한 업종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나 KOSDAQ150 IT, 반도체 및 KOSDAQ150 의약 업종이 성과에 부겨하였습니다. 종목별로는 LG이노텍, HD현대일렉트릭 등 미보유 종목의 주가 하락이 상대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2분기 실적 호조를 예상하고 편입했던 심텍, 반도체 장비인 브이엠, 반도체 소재인 티에스이 등이 반도체 업종의 급락과 함께 펀드 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반도체 시장 급락에 대응하기 위하여 반도체, 전자부품, KOSDAQ150 IT 업종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급락에 따른 주가 매력기 발생한 기계, 조선 등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반도체 업종의 주가 상승으로 인해 소외되었던 의약 업종 대형주와 2분기 실적 호조 및 정제마진 강세가 예상되는 정유 업종, 주가 하락에 따른 가격 매력기 발생한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등에 대한 비중을 상향하였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7월 31일 대폭등에도 불구하고 7월 월간 KOSPI 수익률이 -22.1%로 1990년 이후 역대 3위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KOSPI 지수는 낙폭 과대 영역에 들어온 것으로 판단합니다. 과거 대형 악재였던 90년 3저 호황 버블 붕괴, 97~98년 외환위기, 00년 닛켄 버블 붕괴 등의 사례들과는 달리, 현재는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만한 징후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8월 KOSPI는 저점을 높여가는 반등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합니다. 2분기 실적을 통한 빅테크들의 Capex 확대 기조 및 AI 비즈니스 성과 재확인, 반도체 실적 발표 이후 주도주를 중심으로 한 3~4분기 실적 추정치 상향 가시성, 글로벌 레버리지 펀드들의 강제 매도세 진정 등이 저점 확인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관건은 주가 회복의 강도와 지속성입니다. 이는 AI 산업에 대한 불안감 해소,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 완화,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양상이 결정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빅테크들의 Capex 집행 기조가 2027년까지 확대되는 것과 함께 예상치를 뛰어넘는 AI 비즈니스 성과가 확인되고 있어 투자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은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7월 FOMC 이후 케빈 워시 연준의장의 발언이 매파적으로 해석되기도 했으나, 연준의 금리 예상 경로가 덜 매파적으로 수정되었고, 금리 인상 예상 횟수가 연 2회에서 1회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만큼, 10년물 금리 급등에 따른 긴축 발작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노이즈는 지속될 수 있으나,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8월 증시는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조정받았던 업종을 중심으로 안도 랠리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며, 펀더멘털 훼손 없이 이익 증가세가 유효한 핵심 주도주 중심의 대응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글로벌 빅테크 업체의 수익성 우려와 맞물려 미국과 이란 간의 확전으로 인한 유가 상승, 이로 인한 미국의 장기 금리 급등으로 인해 시장의 가격 조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한국 시장의 경우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쓸림이 심했던 상황이므로 가격 조정의 폭이 컸고 가팔랐습니다. 다만, 7월말 기준 KOSPI 12MF PER은 5배 수준으로 역사적 저점 수준에 위치해 있고 반도체 쓸림 현상 또한 주가 조정으로 인해 완화되었으므로 현재 상황에서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 반등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반도체 업종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해당 업종에 대한 관심을 재차 높일 계획입니다. 다만, 과거와 같은 쓸림 현상이 재현되기보다는 반도체 가격 흐름과 주주환원 정책 등을 확인하며 단계적인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 소재의 경우 정유 업종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정제설비의 타격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정제마진의 중장기적인 강세 흐름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철강 업종은 과거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졌고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중립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여 알파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 산업재의 경우에 대해서는 실적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수요가 확대되는 전력기기 업종에 대한 관심을 높일 계획이며 실적 호조가 지속되고 데이터센터용 엔진 증설 가능성이 높아 중장기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은 조선업에 대해 관심을 높일 계획입니다. - 자동차 업종은 미국이 중국산 로보트 부품에 대한 사용을 제한함에 따라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 가치에 부각될 수 있어 해당 이슈에 유의할 계획이며 유틸리티, 건설 업종은 국내 AI 데이터센터 건립과 함께 국내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될 개연성이 높아 해당 이슈에 유의하며 트레이딩 기회를 모색하겠습니다. 금융 업종은 시장의 반등 흐름과 함께 가격 매력과 배당수익률이 확보된 증권 업종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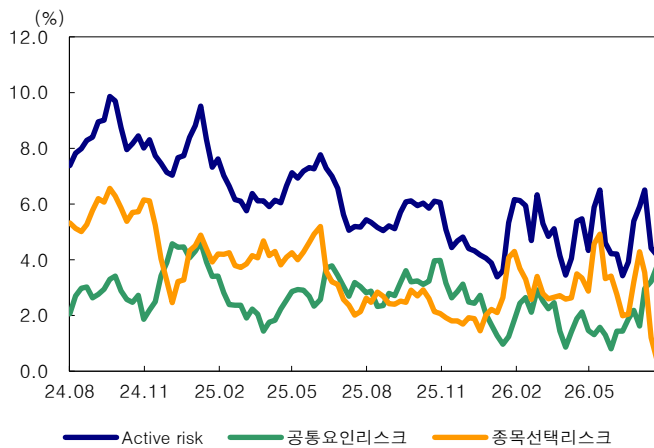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 리스크.

리스크 구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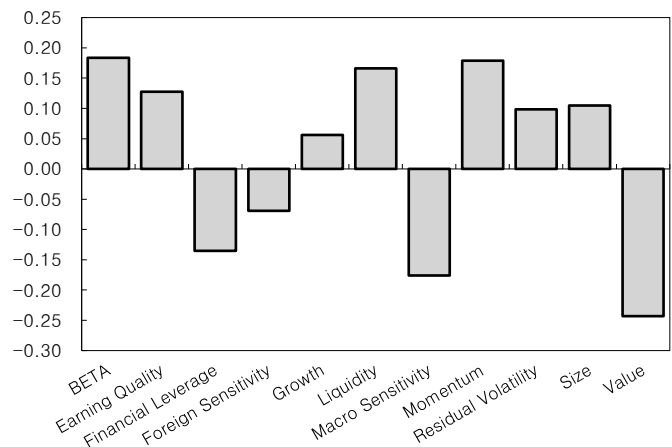
	2026-07-31	2026-06-30
Active Risk ¹	4.18%	4.26%
공통요인 리스크 기여도 ²	3.74%	2.20%
- 스타일 리스크 기여도	4.86%	1.81%
- 섹터 리스크 기여도	-1.12%	0.39%
종목선택 리스크 기여도 ³	0.43%	2.06%
베타	1.13	1.17

1. Active Risk는 벤치마크 대비 펀드의 초과 수익률에 대한 변동성으로 공통요인 리스크와 종목선택 리스크로 구분됩니다. Active Risk 수치가 높을수록 펀드가 벤치마크에 비해 적극적으로 운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공통요인 리스크는 스타일 및 업종 리스크와 공통요인간의 상관관계로서, 주식시장 전반에 미치는 리스크를 의미 합니다.
3. 종목선택 리스크는 경영성과, 노사분규 등과 같은 개별기업의 특수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리스크로서 공통요인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기업 고유의 리스크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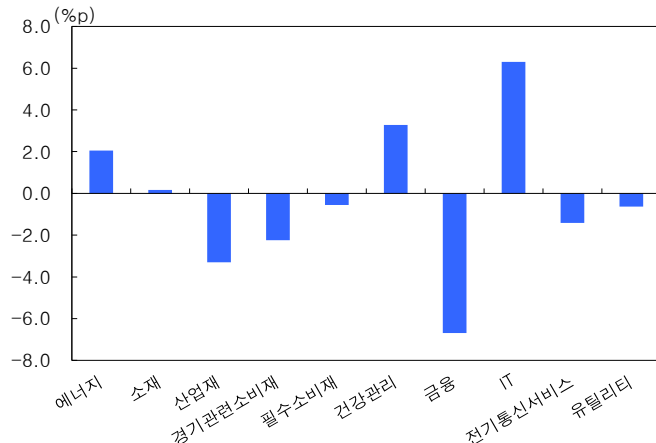
<Active Ri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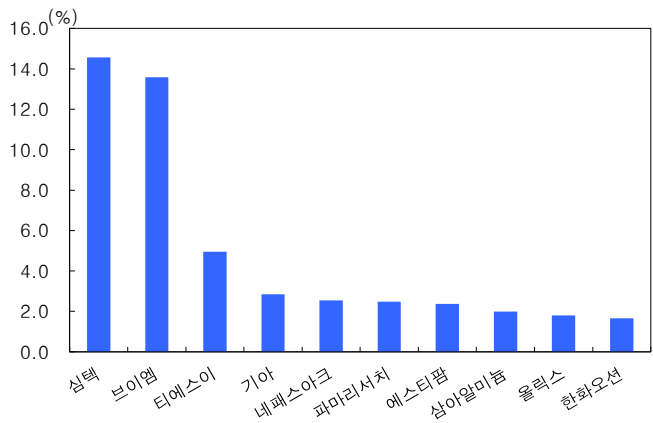
<벤치마크 대비 스타일 비중차>



<벤치마크 대비 섹터별 비중차>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



분석 결과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는 6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7월말 현재, 업종일등증권1[주식] 펀드의 Active Risk는 4.18%로 전월대비 감소하였습니다.
- ▶ 종목수는 전월대비 9개 종목 감소하여, 70개 종목을 유지하고 있고,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성향은 변동이 없었으나, 벤치마크 대비 '금융', '에너지' 등의 비중 차이는 증가하였고, '건강관리', '산업재' 등의 비중 차이는 감소하였습니다. 종목 기준으로 본다면, 6월말 기준으로는 '브이엠'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상승하였고 '삼아알미늄'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하락하였습니다.
- ▶ 종목 선택으로 인한 리스크는 전월대비 감소하였고, 종목집중 위험은 적절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 ▶ 동펀드는 'Value'보다는 'BETA'가 높은 스타일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판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약속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